

2021학년도 여름방학

전대^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2021 여름방학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생

전대愛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접수기간

2021. 6. 21. ^월
~ 7. 20. ^화



공모대상

본교 재학 중인 대학생 누구나

공모내용

전대愛서52 중 1권을 읽고 국문으로 작성한 독서 에세이 1편

- 분량: A4 1~2매
- 파일형식: 한글(hwp) 또는 워드(word)

접수방법

기초교육원 누리집(<https://ile.jnu.ac.kr/>)에서 온라인 접수

- HOME > 학생지원 > 대학 및 공모전 > 독서 에세이 공모전 > 신청하기

심사기준

항목	심사 기준	배점
주제	• 글쓴이의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서술 • 도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가치 발견	50점
구성	•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 • 각 단락 간의 유기성 및 논리적 일관성, 분량의 적절성	30점
표현	•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어휘 사용과 문맥과의 조화 • 문법에 맞는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의 정확한 사용	20점

수상작 발표

2021. 8. 3.(화) 예정

- 기초교육원 누리집 게시 및 수상자 개별 연락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장, 상금 150,000원	 우수상 2명 상장, 상금 100,000원	 장려상 3명 상장, 상금 50,000원
-------------------------------------------------------------------------------------------------------------------	-------------------------------------------------------------------------------------------------------------------	-------------------------------------------------------------------------------------------------------------------

기타사항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투고를 제한합니다.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기초교육원에 귀속됩니다.
- 응모작이 표절로 확인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이 타 기관 등의 공모에서 당선되었거나 유사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작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기초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여 학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공익을 목적으로 편집 및 재가공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기초교육원 교양교육지원센터 ☎ 062-530-0918

수상작

최우수상

임○웅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 1

우수상

정○현 콘크리트를 넘어서 4

김○담 회피와 용기 7

장려상

최○혜 '지금, 여기'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용기' 10

김○진 우리 모두 안의 아이지만 13

수상	최우수상
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경제학과 임○웅

우리는 10년이 넘는 교육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러나 매년 뉴스 속에서는 파렴치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악마에 비교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겉모습은 소름끼치게도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면면이다. 나는 왜 평범한 사람들이 ‘악마’가 되고, 심지어는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여러 책들 가운데서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을 관찰하며 그 원인을 파악한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그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

이 책을 비롯해 『전체주의의 기원(1951)』, 『인간의 조건(1958)』 등 많은 명서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Johanna Cohn Arendt)는 독일계 유대인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1933년 나치 독일의 유대인 탄압이 시작될 시기 파리로 이주했고,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4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유대인 탄압의 피해자면서, 동시에 기자로서 1960년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Otto Adolf Eichmann)의 재판에 참석했고 그를 관찰하며 ‘악의 평범성’에 대한 글을 집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이후 그녀는 공화주의 사상가로 활동하며 인간과 사회의 정치적 역학관계, 전체주의 속 인간을 조명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후 1975년 뉴욕에서 타계한다.

때는 1960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 체포된다.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불린, 심한 근시와 고르지 못한 치열만 빼면 평범하게 보였던 이 중년 남성의 본명은 사실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나치 친위대 장교로, 1942년에 열린 ‘반제 회의’에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책을 ‘절멸’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한 참석자 중 하나였고, 전 유럽지역 유대인 수송의 총책임자였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철천지원수와 같은 전범(戰犯)이다. 그는 전쟁 당시 저지른 범죄로 전쟁범죄, 살인죄, 인도적 범죄 등 15개 항목으로 기소되었다. 무려 3,5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이 있었음에도 자신은 그저 명령을 전달하는 ‘배달부’의 역할이었으며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신 앞에서는 유죄일지 모르나 이 재판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뻔뻔해 보이는 그도 처음부터 나치당과 친위대의 핵심인물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아이히만은 원래 오스트리아의 한 정유회사 외판원이었고, 처음에는 정강(政綱)을 모를 정도로 나치당에 큰 관심이 없었다. 당과 친위대에도 1932년 친구의 소개로 가입한 것이었다. 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오히려 출세라는 세속적인 이유로 당원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41년 경 폴란드 서부지역에 세워졌던 수용소의 실태조사를 위해 파견을 떠난 곳에서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다고 표현했다는 것이다.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고, 사망한 유대인들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수감인원이 그 사이에서 이를 뽑아가는 모습, 죽어가는 시체더미에서 아직도 분수처럼 흘러나오는 피... 그도 인간이었던지라 꽤나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다. 사람을 죽이는 걸 즐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서 언급했던 반제 회의 이후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곳에서 친위대 주요 인물들과 행정부 수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을 박멸시키는 ‘영광’을 누리고자 했고, 아이히만은 그 자리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희생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재판 내내, 혹은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나치의 법과 언어였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고, 유대인을 추방시키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중국에는 학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존재하는 명령서나 보고서에는 직설적인 단어가 없었다. 학살이나 처리 등의 단어는 언제나 ‘최종적 해결책’ 혹은 ‘재정착’ 등의 상투적이고 관료적인 단어로 순화되었고, 심지어는 독일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의 정당성을 세뇌시키기 위해 ‘독일 국민을 위한 운명적 싸움’ 따위의 수식어를 붙였다. 실제로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까지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고 나치와 함께 몰락했다. 물론 아이히만도 마찬가지였다.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분명히 ‘전체주의 체제는 모든 사실들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망각이라는 틈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을 숨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 100% 모든 사람들이 전체주의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J.R.R. 톨킨의 말처럼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아이히만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도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 자신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의 한 주체인지,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 속에서 한 부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안톤 슈미트(Anton Schmid)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독일군 중사는 250명의 유대인을 빼들려줬다가 친위대에 결국 처형당했고, 알베르트 괴링은 놀랍게도 히틀러 밑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과 소련군 포로를 구했다. 모두가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오스카 신티러는 아이히만과 비슷한 면이 많음에도 평가는 전혀 상반되는 인물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에, 독일 국방군 첩보부에 있었던 중견 간부였으며, 속물적인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00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구출했다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말로로 그랬다. 신티러는 병치레가 잦았으나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고, 죽어서도 존경받는 위인이 됐으나 아이히만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정하다가 결국 1962년 12월 15일, 자신이 탄압했던 유대인들의 땅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화장당해 지중해에 뿌려졌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수용소에서 화장당했던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결말이

다.

과거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또 다른 아이히만들은 존재했고, 존재할 것이다. 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투입됐던 계엄군이 책을 읽으며 계속 떠올랐다. 광주 시민들을 대낮에 사냥하듯 대검과 진압봉으로 피투성이를 만들어 길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고, 만삭의 임산부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사격을 가한 군인들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허나 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비록 당시 군 수뇌부는 처벌받았으나 그 형량이 가벼워 미처 반성도 없이 사회로 다시 나왔고, 아이히만처럼 실무를 담당할 현장의 영관, 위관 장교들은 제대로 된 처벌 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들에겐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사유(思惟)하는 개인에게 달려있다.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상급자의 명령, 어두운 시대 등은 책임회피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동일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에 저자인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무사유’에 있다고 서술했다. 자기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지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면서 살 것인지, 올바른 정신을 지닌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스스로 늘 경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속의 악은 오직 우리만이 제어할 수 있으니까.

수상	우수상
도서	어디서 살 것인가

콘크리트를 넘어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정○현

부동산, 그리고 살 곳

‘바야흐로’라는 말이 민망할 만큼 대한민국은 강산이 몇 번이고 변할 동안 ‘부동산 전성시대’였다. 그리고 그 시대는 세기가 변한 지금도 건재하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주(主)님보다 (건물)주님이 되고 싶다’ 같은 시쳇말에 웃는 이유는 세태에 대한 씩씩함 반, 공감 반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액수와 부(富)의 환산 단위는 ‘건물 몇 채’가 되었고, 빌딩숲을 지나치면 “저 중에 하나만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물이 명백한 부의 상징이자 불로소득의 지표로 자리 잡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세태 속에서 ‘주거 공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부동산’은 넘쳐나지만, 그 단어에서는 금전적 가치만 논해질 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영어로 보자면 ‘house’는 남았지만, ‘home’은 사라진 셈이다.¹⁾ 이와 같은 현상에 작가 유현준은 보다 근본적인, 그러나 모두에게서 잊힌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 책의 제목이 되었다.

공간, 그리고 유기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추천사 중 최재천(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교수)은 이런 문장을 썼다.

“도시는 인간과 유기체처럼 연결되어있다.”

1) 영미문화권에서 두 단어는 모두 ‘집’을 가리키지만, ‘house’는 건물 자체를 가리키고, ‘home’은 정서적, 사적인 애정이 깃든 곳을 가리킨다.

그 중 인간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주거 공간’일 것이다. 유현준 작가는 앞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도 볼 수 있듯, ‘살 곳’에 대한 탐구를 늦추지 않아왔다. 이는, 『어디서 살 것인가』의 사례 제시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가 자주 인용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살 곳’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필자는 이 책을 읽기 전, 그리고 이 글의 서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집’이라는 좁은 의미만을 생각해왔고, 때문에 초록의 ‘주거 공간’ 자리는 ‘집’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그러한 편협한 생각은 부서지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정주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우리가 ‘정주’하는 공간은 결코 집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부터 공원, 거리와 차까지. 유현준 작가는 이 책의 전반에서 정주 공간은 집을 벗어난 우리가 머무르는 모든 공간이라는 시각을 가진 채 시종일관 모든 공간에 이유를 덧입히고, 그를 탐구한다. 또한, 세계사 각국의 문명 발전, 마케팅과 신앙에 이용하는 심리적 트릭, 인종과 문화에 대한 혐오 발생 배경을 건축과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책 전반에서 풀어낸다. 그래서인지 책을 읽다보면 건축가가 쓴 책답지 않게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을 알 수 있다.

안일함, 그리고 센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건물과 교도소의 연관성이다. 필자는 교양 수업 때 정용준 작가의 단편소설인 「벽」에 대한 서사비평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강의 영상 중, 교수님께서서는 판옵티콘²⁾을 다방면으로 분해한 단면도를 보여주신 후,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다. 긴 복도와 복도에 딸린 단방향의 문, 투명한 창. 판옵티콘은 분명 감옥이었지만, 해당 단면도에 ‘학교’라는 이름을 붙여도 이질감은 없을 것이었다. 이러한 의문 제기는 유현준 작가 또한 하고 있다. 지식인이라면 응당 들어야 할 의문이었나, 그렇다면 다들 왜 ‘응당’이지 못했나. 이제 갓 과거가 된 공간,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일상이었던 곳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못한 채 ‘키워진’ 시간들에 대한 의문과 배신에 씩씩한 뒷맛이 남는다.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그의 센스라면, 바로 말재간이다. 어문(語文)계열 학과에 재학 중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은 그의 언어 구사가 눈에 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똥을 구의 반복을 근현대 소설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을 ‘-게다’, ‘-리라’와 같은 맷음을 통해 돌파한다. 또한, ‘다르다’와 ‘틀리다’의 혼용하는 사회적 현행을 사회문화적 인식과 엮어 피워내는 발상 또한 인상 깊은 요소 중 하나로 꼽고 싶다.

2) panopticon,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이 합성된 용어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형태다. 후에,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컴퓨터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 또는 침해하는 대상으로 비유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경험, 그리고 공백

그렇게 언어학과 인문학, 건축학을 넘나드는 재주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을 꼽으라면, 일반인의 시선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내용에서 작가가 선호하는 요소를 꼽으라면 열린 공간, 골목길, 계단일 것이다. 그의 낭만과 그 낭만이 비롯될 수 있는 추억은 존중하지만, 그런 그의 시선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일반인들의 경험에만 국한된다. 그가 말하는 열린 공간과 1층과 직통 가능한 계단, 차가 없는 골목길들을 즐길 수 있는 전제들에 교통 약자는 배제되어있다. 잘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선부른 의견 제시는 금물이라는 철칙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건축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살 곳, 그리고 당신

우리는 공간은 공간으로 남길 뿐, 그곳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라는 답을 했다면, 두 가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매력이 당신을 그토록 그곳에 살고 싶게 만들었나?

수상	우수상
도서	미움받을 용기

회피와 용기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담

나의 아버지는 회피형 인간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검은 웅덩이 속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언제나 안락한 회피를 선택하셨다. 가족의 일에도 마찬가지였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얻는 이익을 좇기보다는 본인의 편안한 삶을 기도하셨다. 그리하여 우리 집은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한 가정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짐은 오롯이 어머니께로 향했다. 추운 겨울, 어머니께서 손을 발발 떨며 길거리에 나앉아 생리대를 팔았을 때에도 아버지는 포근한 침대에서 어린 나와 함께 티브이를 시청하며 하하 호호 웃곤 하셨다. 그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비가 눈에 띄게 선명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자 어머니의 고통을 오롯이 절감했다. 성인으로 살아가며 감내해야 할 것들이 나 하나를 감당하기도 벅찰 만큼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자신의 버거움과 함께 우리 네 가족의 짐을 떠안고 살아오셨다. 불편한 일에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회피성에 문득 경멸이 일었다.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다짐했으나, 안타깝게도 나는 가족 중에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을 듣는 자식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피성을 질게 이어 태어났다. 한차례의 수능을 실패하고, 다음 해 또 한차례의 수능도 실패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버거운 20대 초반의 삶을 걸어왔다. 심지어 주위엔 우위에 서 있는 비교 대상이 너무나도 많았다. 한두 살 터울의 친척들이 앞서 다 튀가며 명문대를 진학하자 나의 자존심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져갔다. 필연이라 생각했다. 나의 회피성이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리 둘러댔다. 그토록 경멸했던 회피성은 내가 무너지자 점차 강하게 표출됐다. 허물어진 자존심을 들고 세상을 나아가기엔 나의 마음이 그리 올곧지 못했다. 그리하여 실패한 나를 숨기고 멋들어진 척 꾸며내어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기 싫어하던 적극성을 감추고 심하게 낮을 가리는 척 선을 그었고,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면 최대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적절히 꾸며내어 인사했다. 나는 점차 이 거짓됨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나는 이 영터리 삶을 살아가는 내내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회피였고, 자아를 잃은 처참한 말로였다.

진실되지 못한 자는 주위에서 먼저 알아보기 마련이었다. 나의 20년 지기 친구는 내게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다. ‘너는 참 외향적인 아이였는데, 성인이 되더니 점점 변해버렸어. 그때의 네가 참 좋았는데 말이야.’ 당황하지 않은 척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친구가 스치듯 던진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날은 온종일 우울감에 짓눌리곤 했다. 견고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던 방어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이를 속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멈출 수가 없었다. 실패한 나를 보며 비웃을 타인의 시선이 두려웠고, 혹여 그들이 무시라도 할까 지레 겁을 먹었다. 이 두려움은 갈수록 커져갔고, 결국 지나친 열등감이 사고를 비틀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실패의 원인을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나의 노력에 돌렸다. 내가 마치 대단한 잠재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의 노력을 탓하며 실패의 원인을 위안했고,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성공했을 것이란 헛된 가능성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이런 실패만 없었다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단한 핑계로 쌓아올린 탈출구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됨은 나를 점점 더 좀먹어 갔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한없이 뒤로 물러나자 결국 전보다 실패한 현실만이 나를 마주했다.

용기가 부족한 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고작 변명 따위에 불과하다. 상처 입을 용기가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할 용기가 부족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해서 항상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변명을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책을 고른 건 필시 당연한 선택이었을 터였다. 더 이상 그릇된 나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실패적 경험이 현재의 나를 결정할 수 없다. 구렁에 빠진 나를 극복하기 위해 아德勒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분리 지어 생각할 것을 권했다. 아德勒의 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원인과 결과론을 가볍게 부정하면서도 논리의 전부를 뒤집는다. 아德勒는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는 결과론을 부정하고 현재의 ‘목적’에 주목했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낼 뿐이다. 지금의 무연한 나는 경험에 의한 충격으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부족한 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목적론에 따르면 거짓된 자아를 좇는 것도 오롯이 나의 선택이다. 부끄러운 내가 싫어 온전한 나를 타인에게 보이지 않겠다는 목적을 두고, 나의 과거의 실패를 목적을 실현할 수단으로 삼았다.

앞서 말했다시피 나는 스스로의 어그러진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 짙은 회피성을 가감 없이 건드려 부수려는 아德勒의 심리학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부서짐의 끝은 소멸일 테지만, 그 대상은 본래의 자아가 아닌 본연의 나머지 흡수해버린 거짓된 자아일 터였다. 나를 감싸고 있던 불완전한 방어막을 부수고 나와 진정한 나의 세계를 구축할 용기를 복돋아야 함을 알았다.

두려움을 떠안은 채 한 발 앞으로 내민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자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이 상황, '이대로'에 멈춰 서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는 살아온 익숙함을 깨고 싶지 않아 스스로 불온한 삶을 선택했고, 현실적인 노력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아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안락함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와 먼 미래만을 좇는 '만약'이라는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변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변화로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변하지 않아서 따르는 '불만'을 선택할 것인지는 온전히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갖출 시간이다.

수상	장려상
도서	미움받을 용기

'지금, 여기'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용기'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최○혜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간단한 문장이 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항상 나는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흔히 인터넷에서 또래 연예인이 역대 수익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접하면 비슷한 나이의 나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열등감에 휩싸인다. 또한 항상 무엇을 도전하고 싶다가도 ‘내가 이것에 도전함으로써 타인이 이를 시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눈치를 보게 되며, 또 다른 생각으로 ‘이러한 도전을 실패하면 어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보이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이러한 감정과 고민으로 인생은 복잡한 끈으로 연결되어 절대 매듭을 풀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바꿔 준 이 책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지 방향성을 짚어주는 하나의 지침서가 되었다.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이 책에서 청년은 바로 나였다. 아니 크게 보면 우리일지도 모른다. 인생에 대한 명확한 꿈도 목표도 정하지 않고 현재의 안 풀리는 일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청년). 타인에 비해 뒤쳐진다는 생각과 열등감을 지니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청년). 철학자의 말에 항상 의구심을 품으며 반박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이 청년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흔히 존재하는 인간의 특성이자 그 흔히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의 철학자는 말한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오는 고민과 공동체 덕분에 느끼게 되는 고독이라는 감정도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지구에 혼자 남는 기이한 현상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공동체 속에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복잡하게 살기보다는 고민 없이 쉽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책 속의 청년이며 책 속의 철학자의 조언을 통해 현실에 ‘나’의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비교 대상이 생기게 되고, 이 결과로 한 번씩 느끼게 되는 감정인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나는 감정이지만 결코 나쁜 감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감정이 ‘열등 콤플렉스’가 된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변명거리로 삼게 된다. 우리 또래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사례가 학벌이다. “나는 학벌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중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변명거리가 되어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맞다. 즉, 이러한 변명거리를 통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버리면서까지 노력을 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자주 이런 경우가 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계속 오지 않으면 ‘혹시 내가 실수했나?’, ‘잘못 보냈나?’하고 생각하거나 더 크게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으시면 ‘메일을 보내면 안됐나?’, ‘혹시 읽기 싫어하시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면 어찌지?’하는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다. 즉, 타인을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의 청년도 그렇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올바른 삶을 살고 타인의 시선이 그의 삶의 이정표이다. 또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미움을 받기 싫어한다. 철학자는 이런 청년에게 복잡한 인생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과제 분리’를 제시한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김이 식는 반응 또는 아무 것도 없을 때가 있다. “나는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을 해줘야해”라고 보상을 바라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실망한다. 그 때 철학자는 말한다.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고. 우리의 과제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고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보답은 상대방의 과제 즉 타인의 과제이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새겨두면 좋은 말이 ‘타인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며 그 누구도 나의 과제에 개입할 수 없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청년에게 철학자는 말한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택할 것인가.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택할 것인가.” 누구에게나 인정욕구가 있는 만큼 나에게도 이 질문은 자유와 인정을 둘 다 놓치기 싫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인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부자유스러운 삶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철학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인정욕구를 지닌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아니면 철학자는 말한다. “미움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즉, 자유는 미움 받을 용기이다.

앞서 말한 열등감과 자유에 대해 언급할 때의 공통적인 핵심 단어는 “용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 자체의 핵심 단어도 “용기”이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고민은 용기부족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이 말을 했을 때 웃음거리가 되면 어찌지’ 하고 생각하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못한 적이 있다. 그 때 친구가 했던 말이 뇌리에 아직 깊게 남아있다. “남들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지는 않아.” 이처럼 가끔은 과도한 자의식 브레이크에 걸려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자기 긍정을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또 반복되어 언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비추었다면 앞서 말한 ‘과제 분리’를 통해 그에 따른 생각과 반응은 타인의 과제인 것이다. <제 5도살장>이라는 소설에 “신이며, 바라움건대 제게 바꾸지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분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늘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는 ‘용기’가 부족한 것이다. 인간은 특별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평범함이라고 하면 무능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인간은 극단적인 것을 원하지만 이는 굳이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평범해질 ‘용기’를 지닌다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과거를 현재에 끌어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할 때가 있다. 과거를 계속 현재에 불러 만드는 원인과 결과로는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라고 철학자는 말한다. 과거에 무슨 일이 발생했든 ‘지금, 여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는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데 최선의 방법이다. 철학자는 ‘지금, 여기’를 춤추듯 살라고 말한다. 춤을 출 때 우리는 춤이 목적이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다. 그저 춤을 충실히 춤을 추다보면 어딘가에 도달하게 된다.

나는 항상 인생은 복잡한 것이라 생각했다. 타인의 과제까지 개입하여 눈치를 봤었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다. 이런 인생을 사는 내게 철학자가 하는 말을 통해 인생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졌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며 모든 고민의 실마리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철학자의 말들은 인생의 고민을 지닌 개인에게 간단히 생각하라는 조언이자 해결책이다. 우리는 그냥 ‘용기’를 지니고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미움 받는 것이 두렵고 항상 타인의 의견에 맞추며 ‘지금, 여기’를 살아갔던 내가 이 책을 통해 자신 있게 ‘용기’를 내볼까 한다.

수상	장려상
도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우리 모두 안의 아이히만

-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읽고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진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평범하기보다는 독특하고 유별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눈에 봐도 못됐으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 그런데 영화와는 다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악들은 지극히 평범할지도 모른다. 너무 평범해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악이겠다.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하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악을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평범한 악은 현대인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것이다. 과연 ‘악의 평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짧은 글을 써보려 한다. 악이 평범해지면, 혹은 평범함이 악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전범 재판에 참관하고 작성한 칼럼에서 시작됐다. 그 재판에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사람은 유대인 대량 학살을 계획한, 특히 기차 안에 가스실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낸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었다. 아렌트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아이히만을 관찰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새로운 악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책에서는 아이히만에 대한 아렌트의 냉철하고 합리적인 분석이 아주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무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각각 ‘말하기’, ‘생각하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이히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하기의 무능성’이다. 아렌트가 제시한 ‘말하기’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타인에게 전달하며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아렌트는 이 ‘말하기’가 가진 힘에 집중했다. 아렌트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말-사유의 관계가 유기성을 가지며, 말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사유와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렌트는 사유를 통한 말하기만을 진정한 말하기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하기의 무능성’

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생각하기’ 역시 점심으로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생각하는 ‘생각하기’와 전혀 다르다. 이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사유, 즉 ‘생각하기’인 것이다. 재판 당시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자신의 기분을 묻자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의 기분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줄 몰랐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타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될지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고려하는 것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아이히만이 어떻게 타인을 알 수 있었을까. 또한 아렌트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곧 ‘판단하기’와 같다고 이야기했다. 판단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최종적인 의식과정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알기 쉽다. 결국 ‘말하기의 무능성’이 ‘생각하기의 무능성’을 낳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까지 초래했다. 이 세 가지 무능성과 ‘근본악’이 만나서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근본악은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악의 평범성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근본악은 인간이 결코 처벌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가 겪은 근본악은 나치즘이었다. 나치즘을 행한 사람은 처벌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치즘 그 자체 혹은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회 그 자체는 처벌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근본악은 한 시대 혹은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상이나 사회 그 자체처럼 다른 악을 탄생시키는 어떤 거대악이다. 근본악을 마주했을 때 사유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히만이나 히틀러처럼 새로운 악을 계속해서 탄생시키는 것이다. 나는 근본악에 대해 고민하다 ‘자본주의’가 현대의 근본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논리라면 모두 정당화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 살 곳이 없는 노숙자들, 그 외 모든 돈에 의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무언가는 처벌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고통을 주는 것 그리고 고통을 받는 상황은 분명 악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악을 행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것을 악이라고 받아들일까? ‘무사유’가 일상이 된 우리는 악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 나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돈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회를 한 번의 의심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그 속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다.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다. 특정 인종, 국가에 대한 편견, 성별에 대한 편견, 특정 세대에 대한 편견 등 사람들을 지배하는 모든 편견과 사상이 누군가에게는 근본악이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렌트의 사상이 던져주는 큰 시사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각종 혐오가 만연하는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사유를 통해 수많은 근본악을 물리치자는 말이 아니다. 적어도 그 근본악들 속에서 우리 안에 잠들어있는 아이히만이 깨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유해야 한다. 근본악에 휩쓸리지 않도록 굳게 버티며 조금이나마 서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이제 ‘악의 평범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볼 수 있다. 세상을 ‘평범’하게, 악과 싸우지 않고, 단지 받아들이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존재할 수밖에

에 없는 근본악 속에서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해야 한다. 끊임없는 '사유'가 내 안의 아이히만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2021학년도 여름방학 전대애틀서52 독서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21년 8월 4일

발행인 : 차 성 현

편집인 : 문 지 환

발행처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센터

주 소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 화 : 062-530-0916

팩 스 : 062-530-5072

누 리 집 : <http://ile.jnu.ac.kr>

©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2021.